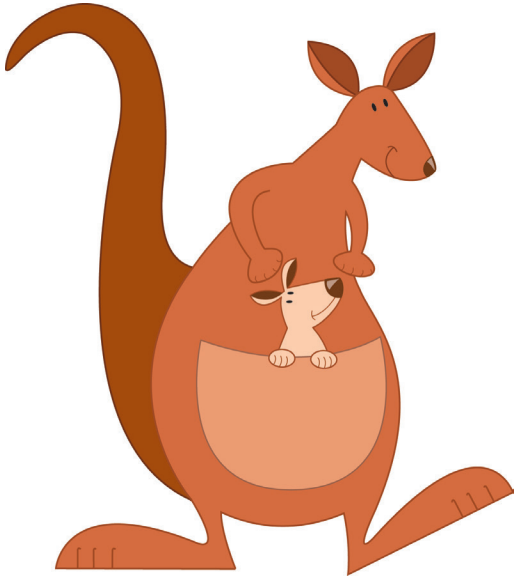


알아
두세요...

열이 날 때의 치료법: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세요!

자녀가 열이 날 때 부모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. 보통, 열은 감염 또는 기타 질환의 증상입니다. 대부분의 경우, 2-3일이 지나면 열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.

만일 자녀가 열이 있어도 잘 놀고, 잘 먹고, 평소와 같이 행동한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자녀가 열이 나서 몸이 불편해지면, 좀 더 편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. 열을 내리면 좀 더 편안해지지만, 불편감을 없애고자 열을 정상 수준으로 완전히 낮출 필요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.



도움이 되는 방법

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(어린이용 **TYLENOL®**의 성분)이나 이부프로펜(어린이용 **MOTRIN®**의 성분)이 아이의 불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들 해열제의 효과는 30-60분 정도면 나타납니다. 담당의에게 도움말을 구하세요.

편안함 요령: 아이가 잠이 들었다면 몸이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. 대부분의 소아과 의사는 해열제를 먹이려고 자는 아이를 깨울 필요는 없다고 충고합니다.

또 다른 방법들:

- 아이의 몸을 약간 미지근한 물에 적신 스펀지로 닦아내세요(아이가 이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에만). 아이가 추워서 떨기 시작하면 중단하십시오.
- 옷을 얇게 입히고 실내 온도를 낮추세요.
- 아이가 수분을 많이 섭취하도록 하세요.

담당의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

- **아이가 3개월(12주) 미만**이고, 체온이 100.4°F (38°C) 이상 올라감
- **아이가 3개월(12주)을 초과**하고
 - 체온이 104°F (40°C) 를 초과함
- **또는**
 - 체온이 100.4°F (38°C) 이상이며 **동시에**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음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한 두통 • 목감기 또는 귀 통증 • 구토 또는 설사 반복 • 뺨뺨한 목 • 이상한 발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주 아파 보이거나, 극심하게 졸음이 오거나, 청열땀 • 아주 뜨거운 장소(예: 과일된 차 안)에 있었음 • 평소에 면역 체계상 문제 또는 발작 경험이 있거나, 스테로이드를 복용함
--	--

담당의에게 연락해야 할 또 다른 이유:

- 여러 조치를 해도 증상이 악화됨
- **아이가 3에서 24개월 사이**이고, 24시간이 지나도 열(100.4°F 38°C 이상)이 있음
- **아이가 24개월 이상**이고, 3일이 지나도 열(100.4°F 38°C 이상)이 있거나, 열이 내려갔는데도 "아픈 것처럼 행동"함



무료 Kids' Wellness Tracker 다운받기

자녀의 신장, 체중, BMI, 백신, 증상, 약을 기록하고 투여량을 계산합니다.

McNEIL-PPC, Inc.의 McNeil 소비자 의료서비스부가 제공하는 건강 요령, Children's **TYLENOL®** 및 Children's **MOTRIN®** 제조사



App Store는 Apple Inc.의 서비스 마크입니다. Google Play는 Google Inc.의 상표입니다. 표준 다운로드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©McNEIL-PPC, Inc. 2013 MHP-001K